

# 영암군 내년 시행 고향기부제 준비 박차

### 15개 팀으로 실무협의체 구성 출향인 조사·답례품 개발 등 나서 연내 기부금모금 조례 제정

영암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사전 준비TF팀을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내년 시행을 위해 사전 준비 TF팀 11개 실과소 15개 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실과소별 홍보방안과 출향인 조사, 관계인구 늘리기, 답례품 개발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TF팀 실무회의를 개최해 답례품 발굴과 선정, 고향사랑기부금 연내 설치, 기부금의 효율적 모금을 위한 관계인구 확대 DB구축에 착수했다.

이날 우승희 군수는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로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출향인들이 그리워하는 부모님 영상 촬영, 고향에서 출하된 신선한 농특산물, 영암의 민속씨름단을 활용하는 답례품 개발,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전담팀을 신설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 연내 영암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모금된 기부금에 대해서 기금을 설치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우승희 영암군수가 지난 4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TF팀 실무회의를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 받거나 모금을 통해 취득하는 기부제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명시한 기부금은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기초와 광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군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외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이내 최대 150만원 미만 지역특산물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출향인 관리, 명예군민증, 기업인, 스포츠 관계인, 귀농의향인 등 민간 참여를 통한 제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제적이고 발 빠른 준비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침체한 지역이 활력 넘치는 영암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

# 무안군, 노래하는 청년농부 홍보대사 위촉

무안군이 노래하는 청년농부 가수 농수로 씨를 무안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농수로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박주안 씨는 군 복무 후 태권도 사범으로 도시생활을 하던 중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고향인 무안으로 귀농했으며, 현재는 어느덧 10년 차 청년농부이자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각종 TV프로그램에 출연하고 활발한 가수 활동과 행사 진행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다. 특히 농사, 노래, 먹방, 개그 등 다양한 소재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가 왜 거기서 나와'를 전라도 사투리 버전으로 개사해 유튜브에서 55만부 이상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제25회 무안연꽃축제와 더불어 진행된 KBS1 '전국노래자랑' 무안군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지역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주안 씨는 앞으로 2년간 무안군 홍보대사로서 지역축제, 농특산물 판매,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 씨는 "고향인 무안군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



김산(오른쪽) 무안군수가 청년농부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농수로씨를 무안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 영광이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다양한 소재로 즐거운 귀농생활을 하는 청년농부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농수로 씨와 함께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군의 이미지를 향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안의 매력적인 모습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해남군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원산지표시 단속

해남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주요 관광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특별 단속은 지난 8일 시작해 12일까지 이어진다. 군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하며 원활한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땅갈, 우수영 등 주요 관광지 도로변 판매장 30여 곳이며, 불시에 현장방문 및 점검

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해남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특별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해남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지역 농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완도군 해양치유 효과 검증 '실증 리빙랩 프로그램' 운영

### 9~13일 5일간...참가자 모집

### 만성 근골격계 통증 성인 우선

완도군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해양치유 실증 리빙랩(Living Lab)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 연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프로그램은 근골격계 통증 환자 및 일반인을 위한 마린 통증 테라피, 머드와 해조류를 이용한 마린 아트 테라피, 마린 힐링 테라피 등으로 중복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마린 통증 테라피의 경우, 오전에는 신지 명사 십리 해송림에서 재활 운동, 오후에는 해수 재활 운동이 진행되며 만성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성인을 우선 접수받는다.

마린 아트 테라피는 머드와 해조류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힐링 테라피는 저녁 시간에 완도의 자연 경관을 즐기며 힐링하는 '노을 바다 힐링' (오후



6시30분), '별과 파도 힐링' (오후 7시50분) 등이 진행된다.

특히 효능, 효과 검증을 위한 스트레스와 뇌파 측정 등 신체 측정이 이루어지며 군은 체험 전후 결과를 분석해 향후 해양치유 프로그램 보완 및 개

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해양치유담당관실 해양치유기획팀(061-550-55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목포시, 내년부터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

### 10월부터 8개동 시범실시

목포시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목포시는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처우 개선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식시간 휴무제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목포시청과 사업소 및 23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 1월 전면 시행에 앞서 오는 10월부터 8개동(용당2동, 연동, 산정동, 목원동, 용해동, 하당동, 옥암동, 부주동)에서 우선 시행한다.

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말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완료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 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시행에 따른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 중식시간은 12-13시로 명시돼 있으나 그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공무원들은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하며 민원을 처리해오고 있다.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직원들의 중식시간 휴식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집행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을 합의했다.

현재 전남도 내 12개 지자체에서 중식시간 휴무제를 부분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 지자체도 전격적 추세에 따라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점심시간 도중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시행 초기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직원들의 휴식권이 보장됨으로써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